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연구관

최초로 나무를 심은 최치원과 신라 역사 속의 상림

상림(上林)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어 만든 숲으로 고산 최치원 선생이 신라 진성여왕(887~897) 때 함양군 태수로 있을 당시 함양읍이 그 가운데로 지나는 뇌계(현재의 위천)의 범람에 의해 홍수 피해가 심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독을 쌓아 강물을 돌리고 독 위에 넓은 잎나무를 대면적으로 심어 가꾼 띠숲이다. 원래 땅이 습하지 않은 저지대에 있는 나무의 집단으로 떨감도 생산하고 야생동물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만든 숲을 임수(林藪)라 하는데 상림이 가장 넓고 대표적이다. 이 숲은 원래 대관림(大館林)이라고 하여 십리에 걸쳐 있었으나 나무자람세가 약해지고 숲 중간에 마을이 생겨 상림과 하림이 되었다. 그 후 하림은 거의 파괴되고 상림만 남게 되었는데 길이가 1.4킬로미터, 폭은 피해정도에 따라 수십미터에서 200미터



▲ 위천변에 조성한 상림 원경

까지 있다.

고산 최치원

구읍지(舊邑誌)에 의하면 옛날부터 대관림에는 개미, 뱀, 개구리 등과 같이 추한 생물이 없었는데 최태수가 나무를 심던 금호미를 숲속 나무가지에 걸어두고 이

곳을 떠나면서 “뒷날에 이 숲에 개미, 뱀, 개구리 같은 추물이 생기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스스로 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줄 알라”고 하면서 떠났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이상하게도 뱀 등이 보이고 송죽(松竹)이 자연적으로 났다고 하니 최태수는 신선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오고 있다. 여기서 신라말의 위대한 학자인 최치원선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신라 말기의 학자이며 문장가인 최치원은 868년 12세의 나이로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6년 뒤 빈공과에 합격하였고 그 후 2년간 낙양을 유람하면서 많은 시를 썼다. 그가 문명을 천하에 떨치게 된 것은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은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 때문이었다. 29세 때 신라로 돌아온 후 이듬해 대승복사비문이라는 명문을 남기었다. 이 시대의 신라는 호족세력이 대두하면서 중앙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없었고 이를 독촉하자 농민의 반란이 발생하였다. 그는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고치고 정치적인 문란을 바로 잡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좌절감을 갖고 결국 은퇴하였다. 즐겨 찾은 곳은 경주 남산, 의성 빙산, 합천 청량사, 지리산 쌍계사였으며 말년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머물렀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의하면 고려 왕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 '계림은 시들어 가는 누런 잎이고, 개경의 곡령은 푸른 솔(鷄林黃葉 鶻嶺青松)'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어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새로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최치원이 살던 시대는 사회적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의 중요한 시기였

다. 자신을 부유(腐儒), 유문말학(儒門末學)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의 학문의 기본은 유학이었다. 유학을 단순히 불교의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양자의 권위수단으로 이용했던 단계를 지나 새로운 정치개념으로 내세우면서 골품제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렇게 유교의 선구자적 역할 이외에 한 문학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기었다. 신라의 전통적인 향가문학과 대립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문장은 문사를 아름답게 다듬고 형식미가 정제된 변려문체였는데 〈동문선〉, 〈계원필경〉에 상당수의 시문이 있다.

그는 유학자라고 하면서도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종래의 학문불교, 체제불교인 화엄종 뿐만 아니라 이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 비판적인 선종의 대두를 주목하였다. 또한 화엄학과 함께 신라불교의 양대산맥인 유식학(唯識學)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노장사상이나 풍수지리설 까지도 이해하여 사상적인 복합화가 신라문화의 새로운 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하였다. 1021년 현종은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려 문창후로 추시하였다.

그에 대한 설화가 〈태평통제〉에 수록되어 있는데 흥미가 있어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최치원이 12세에 당나라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한 후 을수현의

현위가 되었는데 항상 고을 남쪽의 초현관에 가서 놀았다. 초현관 앞에는 쌍녀분이라는 오래된 무덤이 있었는데 옛부터 많은 명현이 노는 곳이었다. 어느날 최치원이 쌍녀분에 관한 시를 지어 읊었더니, 홀연히 취금(翠襟)이라는 시녀가 나타나 쌍녀분의 주인공인 팔낭자(八娘子)와 구낭자(九娘子)가 최치원의 시에 대해 화답한 시를 가져다 주었다. 시를 읽고 감동한 최치원이 다시 두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시를 지어 보내고 초조히 기다리노라니, 얼마 뒤 이상한 향기가 진동하면서 아름다운 두 여인이 나타났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에 최치원이 두 여인의 사연을 듣고자 하였다. 원래 그들은 을수현의 부자 장씨(張氏)의 딸들로 언니가 18세, 동생이 16세 되던 해 그녀들의 아버지가 시집보내고자하여 언니는 소금장수에게, 동생은 차(茶) 장수에게 청혼하였다. 그러나 그녀들의 뜻은 달랐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었고, 그 때문에 고민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을 함께 묻고 쌍녀분이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한을 품고 죽은 그녀들은 마음을 알아 줄 사람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다가, 마침 최치원 같은 수재를 만나 회포를 풀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였다. 세 사람은 곧 술자리를 베풀고 시로써 화답하여 즐기다가 흥취가 절정에 이르자, 최치원이 서로 인연을 맺자고 청하니 두



▲겨울의 상림

여인 또한 좋다고 하였다. 이에 세 사람이 배개를 나란히 하여 정을 나누니 그 기쁨이 한량없었다. 이렇게 즐기다가 달이 지고 닭이 울자 두 여인은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면서 시를 지어 바치고는 사라져 버렸다. 최치원은 다음 날 지난 밤 일을 회상하며 쌍녀분에 이르러 주위를 배회하면서 장가(張歌)를 지어 불렀다고 하며 그 뒤 최치원은 신라에 돌아와 여러 명승지를 유람하고 최후로 가야산 해

인사에 숨어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전한다. 어쨌든 그는 박희진



▲최치원선생 공덕비

시인이 풍류도의 원조라고 칭할 만큼 위대한 학자였다.

선인이 남긴 위대한 숲

위천을 따라 띠숲을 이루고 있는 상림의 겨울풍경은 잎이 없어 흐린 날씨 만큼이나 음산하지만 숲의 위용 때문에 위압감도 든다. 어느 숲과 마찬가지로 숲은 철마다 경관이 다르다. 특히 활엽수 고목이 많은 곳은 사계절의 모습이 너무 달라 언제 가보아도 다른 맛이 난다. 상림의 허리쯤에 있는 작은 주차장이 숲의 입구이다. 들어가기 전에 폭이 30미터 쯤 되는 위천을 바라본다.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고 있어 함양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된다. 물맛이 좋은 약수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곳부터 숲은 신작로처럼 폭 7, 8 미터의 넓은 길이 많은 세월과 인파로 인하여 나 있다. 숲에 들어가지 말라는 상투적인 팻말과 줄이 길들 따라 있지만 숲속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들어와 점점이 환하다. 한 여름에도 바람이 불어서인지 무척 시원하다. 상점 건너편에는 1923년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웠다는 ‘문창후 최선생 신도비’라는 비석이 서 있다.

비석에는 ‘고산이 함양고을을 다스릴 때 죄를 지으면 벌을 주지 않고 덕으로 감화시켰으며, 고을을 옮겨 학사루를 숲안에 세우고 긴 제방에 나무를 손수 심었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이 이를 소중히 하였고 성군(聖君) 소백(召伯)이 유숙한 바 있는 팔배나무를 백성들이 아끼듯이 했다. 세월이 흐름을 따라 아끼고 기리는 마음은 더해 갔고 많은 현인을 배출하였다'라는 내용이 새겨 있다. 비석의 오른쪽에는 기가 막힌 수피를 갖고 있는 까치박달나무가 비스듬히 서서 차가운 비석을 따듯하게 해 준다.

그 오른쪽에 사운정이라는 정자가 있으니 들어가서 앉아 숲을 관조하며 잠시나마 최치원선생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사운정의 편액에는 선생의 치적을 칭송하는 시가 적혀 있다.

천 년전에 학을 타고 내려온 신선이 있었다는데
우거진 숲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 구나
고을 원들의 칭송이 백리까지 자자하고
이 정자에서 보이는 경치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답도다
피꼬리가 우는 소리 들으며 시를 짓는데
힘차게 헤엄치는 봉어를 보니 젊음이 그리웁구나
고을 사람들이 이런 물고기를 잡아 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로다
이 모든 풍광이 선정의 덕으로 오랫동안 전해 지리라

또한 천년이 지난 후 계은 하재철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었다.

신라가 망한 후 또 천년이 흘렀는데
지금껏 이 숲이 남아있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듣자니 큰 오리가 백일에 날았다는 전설이 있고
피리부는 학이 청천에 내려왔다 하니 의구스럽구나
지리산의 안개와 구름이 내가 누운 곳까지 이어져 있고
가야산의 산수가 노래하는 내 옆에 있도다.
오늘의 이 넉넉한 유희는 누구의 덕이나
선생(최치원)의 풍운이 지금에 전하는구나

죽은 사람을 이야기 할 때는 좋은 점만을 하는 것이 우리네 정서라지만 위의 시들은 정말 최치원을 극찬하는 글이다. 그러나 편액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든 한문으로 써 이는데 이를 해석한 글들이 있으니 한시를 모르는 필자로서는 고마울 따름이다. 사운정 뒤에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주나무가 예쁜 표찰과 함께 서 있는데 나무껍질의 모양은 철을 부식시킨 것 같은 구멍이 뚫린 채로 줄기가 영켜 있다.

산책로 좌우에는 수백년 쯤 된 나도밤나무, 느티나무, 왕개서어나무, 졸참나무가 키도 크지 않으면서 두꺼운 허리를 자랑한다. 이제는 공원으로 되어 상림공원으로 불리워서 그런지 평행봉이 보이고 나무의자나, 고인돌 모양의

돌의자를 군데군데 설치해 놓았다. 숲 바로 오른쪽에는 개울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 가까이 가려고 숲을 이리저리 밟고 다닌 모양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고개를 내민 어린 나도밤나무 새잎. 풍파에 시달려 잘 살리지 걱정된다. 차세대의 숲을 만들려고 10살 쯤 된 벗나무를 심어놓았지만 가지 끝이 마르고 생장이 빈약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부분적으로 휴식년제를 실시하면 고목을 대신하여 새로운 숲이 될텐데 이대로 아름다운 숲이 망가지면 최초의 조림가인 최치원선생을 뵈면 면목이 없을 것이다.

산책로의 끝은 마을로 가는 길 때문에 윗숲과 단절된 모습이고 돌다리를 지나 윗숲으로 들어가 있어도 넉넉한 숲은 3미터 정도의 숲길을 만들고 그 끝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자본주의적 야망인 상점과 음식점이 가로막는다. 두께가 일미터나 되는 웅장한 나무는 썩어서, 붓고 가운데가 빈 채로서 있어서 좋은 구경거리를 준다. 상점앞의 숲 속에 옆으로 퍼진 당단풍의 작은 자태는 가을이면 더욱 요염해 질 것이 분명하다. 다시 돌아서서 숲으로 돌아오면 쪽동백 집단이 후손을 남기고 함께 사는 곳도 보인다. 상림을 겨울에 가 보면 상층 부분에 갈참나무, 졸참나무, 때죽나무, 서어나무 등이 굵은 허리와 가지를 날 날히 보여주며, 중간에는 그래도

벽돌색이나마 마른 잎들이 아직 붙어서 숲을 밝게하는 당단풍이 있고, 맨 아래 층에는 조릿대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초록을 자랑하며 공간을 나눈다.

길게 늘어선 상림의 중앙을 산책로와 함께 세로로 흐르는 개울은 맑은 물이 큰 물소리를 내며 숲을 활기치게 한다. 어디선가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여울에 섞여 들어간다. 개울의 폭은 약 4미터, 깊이는 1미터 정도인데 개울의 침식을 막기 위해 호박돌로 둑을 쌓은 모습이 특이하다. 숲 밖에 큰 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 가운데로 조그마한 개울이 흘러가게 한 이유는 산책할 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다른 지역의 마을 숲과는 달리 상림은 상당히 넓어 이런 풍류를 즐길 수 있다. 개울이 만들어 준 빈 하늘사이로 햇빛을 받으려고 주변의 나무들이 비스듬하게 서 있다. 서어나무의 수피는 군데 군데 썩어 구멍이 뚫려 있다. 그 네줄을 매거나 신선이 앉아 있기 좋을 만큼 넉넉하게 굵은 가지를 수평으로 뻗은 나무에는 껍질에 신선할아버지 이마의 주름같은 연륜이 세로로 깊게 파여 있다. 고목이 쓰러진 후에도 그 아래 대기하고 있는 나무가 자라 다음 숲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아 새끼나무가 싹을 틔우지 못하니 나무할아버지가 죽고 난 후가 궁금하다.

숲의 구조

1961년 천연기념물 154호로 지정된 숲의 면적은 약 12헥타르인데 100~500년된 낙엽활엽수가 대부분으로 침엽수는 보기가 힘들다. 모두 114종의 나무가 있으며 느티나무, 밤나무, 이팝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운노리나무, 서어나무, 층층나무 등이 많다. 오랜 역사 속에서 큰나무 밑에 새끼를 치며 대를 이어 왔기 때문에 서어나무 및 개서어나무 무리가 전체의 23%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갈참나무-서어나무 집단이 14%이고 갈졸참나무 집단이 10%로 많다. 온대남부림의 특징수종이며 숲의 마지막 단계인 개서어나무와 나도밤나무 집단이 나타나기도 하여 안정된 숲의 구조를 보여준다. 나무의 키는 10~25미터로 다양하며 가슴높이의 둘레가 가장 큰 것은 160센티미터로 나무의 나이를 짐작케 하지만 속이 부패된 나무가 많아 상림의 미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토양은 잘 썩는 활엽수 낙엽 때문에 비교적 비옥하며 토양의 깊이도 좋아 활엽수가 자라기에는 적당하지만 사람들이 땅을 밟아 다져져서 종자에 의한 어린나무가 자라지 못하여 다음 세대의 숲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제멋대로 구부러진 나무들-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다. 까치박달나무의 껍질

은 정말 특이하다. 손장순의 고목그림이 연상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무들. 검은 옷 속에 감춘 흰백의 속살이 피해를 받아 드러나 있다. 함양읍이 지척인 곳에 이와 같이 희귀하고 오래된 나무를 볼 수 있게 해 준 최치원선생이 고맙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5개의 큰 징검다리를 건넌다. 조릿대도 점점 키가 커져 이제는 거의 1미터나 된다. 겨울 가뭄이 있는 해에는 끝이 마르기도 하지만 쉽게 죽지 않는다. 겨울나무 사이로 보이는 작은 동산 밑에 아담한 집이 보이는데 여름이 오면 녹음때문에 볼 수 없는 특이한 정감을 느낀다. 곰팡이가 나무에 붙어 산다. 개울에서 가까운 곳은 사람들이 역시 물을 좋아해서인지 흙이 많이 파여서 돌을 박아 이를 방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드러난 뿌리의 생김새가 마치 문어발 같다. 산책로가 여기저기 조릿대 사이로 나 있어 어지럽다. 조금 더 내려가니 평면의 돌다리가 나타나는데 발에 밟히는 흙의 감촉이 보드랍다. 인공적으로 만든 사각형의 연못이 숲 밖에 있고 아치형으로 생긴 금호미다리가 개울에 투영되는 작은 광경을 감상하면서 조금 내려오면 사운정이 다시 나타난다.

여기부터 차도와 인도가 숲 가장자리에 나있어 소음이 있지만 길을 따라가면 도대체 숲과 어울리지 않는 운동장이 나타난다. 주변의 개서어나무 집단이 운동장

을 감싸주나 숲의 훼손이 심하다. 서북쪽에 위치한 함화루라는 누각이 운동장 동편의 새로 짓는 건물과 대조를 이룰 것인지 불안하지만 다행히 운동장과 함화루 사이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부조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것이라고 희망해 본다.

함화루(咸化樓)는 경남유형문화재 258호로서 함양읍성의 남문이었다. 처음에는 망악루(望嶽樓)라는 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리산이 보였기 때문이다. 1932년 노덕영이 현위치에 짓고 함화루라 하였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 2층 누각의 팔작(八作)지붕이며 공포(供包)는 이익공식(二翼工式), 구조는 목조 오량가(五樑架)이다. 2층의 내부는 단청을 칠하였으며 퇴량(退樑)에는 용신(龍身)을 단청으로 그렸다. 2층 출입은 목조계단을 이용하고 난간을 돌렸다. 문루로 이용될 때에는 하층에 벽과 문짝이 있었으나 흔적만 있고 현재는 정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림 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함양분기점에서 내려 함양읍으로 들어가 첫번째 사거리에서 백전가는 길로 우회전하면 군청이 곧 나오며, 잠깐 더 가면 위천을 두고 작은 사거리가 나온다. 다리를 건너지 않고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곧 상림에 다다른다. 상림 앞 위천 건너에는

3층으로 된 상림장 여관이 있어 하루밤 묵어보는 것도 괜찮다.

도천리의 숲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기에 물이 흘러나오는 상류에도 숲이 울창하지 않을까 하는 전공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상림을 지나 하천을 따라 더 올라가 보았다. 물길에 급하게 왼쪽으로 굽는 곳에 약 2헥타르 정도의 소나무림이 나타나고 그 옆에는 상림의 나무 나이와 비슷한 활엽수림이 있었다. 이 곳이 병곡면 도천리의 마을 숲이다.

도천리는 풍수지리상 와우형(臥牛形)의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소의 목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이 숲은 예전에 “마을 앞이 띄어 함양읍이 보이므로 마을에 좋지 않다”하여 수구(水口: 마을 앞의 물이 흘러가는 출구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막이로 조성된 것이다. 홍만선의 택리지에 의하면 “집 주변에 왼편에 흐르는 물과 오른편의 긴 길, 앞의 못, 뒤의 언덕이 없으면 동쪽에는 복숭아 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남쪽에는 매화와 대추나무를 심으며, 서쪽에는 치자와 느릅나무를 심고, 북쪽에는 빛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으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써 있다. ‘수구가 영성하고 넓은 곳은 비록 밭이 많고 집이 넓어 부유하

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못가고 쇠한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어 펼쳐진 곳을 택한다. 그러나 산에서는 수구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평야에서는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수구란 마을 앞의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거나 터진 곳이므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으려면 수구를 닫은 형상을 띄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숲이 필요하였다. 도천리 숲 주변 산능선은 그림 1과 같이 호랑이, 고양이, 개의 형태인데 이 동물들의 생존 영역 한 가운데에 숲이 위치하고 있다. 즉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러 내려오다 강이 앞을 막고 멈춘 곳에 숲이 있다. 마을 앞산의 바위는 ‘호랑이가 정면으로 마을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로서 도천리에서 큰 인물이 나지만 그 호랑이가 정면으로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명예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빨치산 출신인 하모씨는 조상의 묘앞에 있는 솔 숲을 없애면 인물이 난다고 하여 숲을 없었는데, 결국 하씨는 이름은 낫지만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호랑이나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숲을 없애버려 몸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이 전한다.

도천리 숲의 나무는 굵기가 1미터 정도인 것도 있는데 키는 15미터 정도로 크지 않다. 소나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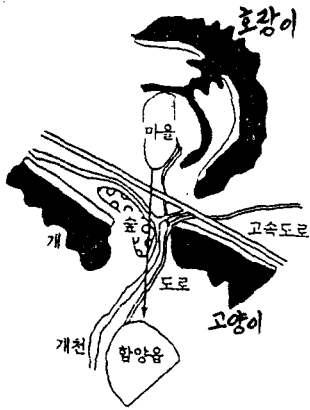


그림1. 도천리 숲의 풍수지리적 형태 (김학범 1994)

형상을 보면 마치 모자를 쓴 것 같이 중간에 그 흔한 가지도 붙이고 있지 않고 꼭대기에만 잎이 달려 있다. 겨울의 도천리 숲은 적막하다. 이름모를 여러 종류의 새들이 고요함을 깨뜨려 무거운 기분을 없앤다. 나이가 먹어 수명을 다한 나무들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고 차세대 나무로서 가는 줄기를 가진 소나무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 이곳은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보호보다는 휴게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소나무쯤 같은 해충의 피해를 받아 쇠퇴하고 죽어가는 나무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소나무의 조형미가 너무 뛰어나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운치가 있고 심지어 죽은 나무 역시 자연의 조각품이다. 우산을 편듯한 것, 용트림하듯이 구부러진 것,

갖은 교태를 보이며 꼬인 것, 아예 밑둥치부터 두 갈래로 나와 형제가 된 것, 큰 나무를 기준으로 좌우 어깨를 기댄 것 등이 조화된 소나무숲은 상림의 활엽수와는 정녕 다른 맛을 보여준다. 특히 겨울에는 초록이 없어 을씨년스럽기까지한 상림에 비하여 훨씬 안정되고 따뜻하다.

숲안에는 세한정(歲寒亭)이라는 자그마한 정자가 있는데 편액(偏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의 글이 적혀 있다.

낙랑장승 늘어진 물가의 정자에서
나 또한 소나무의 절개와 같이 늙어
가겠노라.

이 좋은 경치에 정자하나 짓고자
품은 뜻을 이제야 이루었네

세월이 나와 더불어 흐르고 이곳
은 편안히 지내기에 알맞구나

이 아름다운 숲이 나와 같이 늙어
있고

이름난 정자가 주인을 얻었으니
그 또한 제격이 되었구나

나 이곳에 살면서 무한한 뜻을 알
고자 하느니

물고기와 새들이 자연을 즐기고
있구나

세한정과 같은 숲 속의 정자에는 선비들이 풍류적 은둔 생활을 하면서 우거진 숲, 산천초목의 자연미를 만끽하며, 숲을 마치 신선이 사는 곳으로 삼고 현실을 뛰어넘는 생활을 하였던 것이 다음과 같은 위수 하재구의 한시에 잘 나

타나 있다.

나는 절개 굳은 소나무를 사랑하여
죽을 때 까지 남은 해를 이곳에서
보내겠노라

구름이 흘러가는 적막한 그 아래
스님과 더불어 쉬기도 하고

서늘하게 부는 바람결에 학을 벗
삼아 즐기도 하겠노라

상전이 벽해라 정말로 세상이 변
하는 것을 알 것도 같네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이라더니 이
곳이 곧 신선의 정자로구나

난간에 기대어 자세히 시를 보니
마치 그림과도 같구나

이곳이 곧 천년전 왕유의 망천이
로다.

숲을 떠나며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 앉을 수 없고, 장대한 뿌리 사이에 엮드려 잠잘 수도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 버릴 수 없어 숲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접어 두고 떠난다. 어딘가 쇠퇴해가는 숲을 계절 탓이거니 하고 애써 돌려 보지만 숲을 보전하여 선조의 정신과 얼을 이어 받고자하는 결심을 희망해 본다. 지금은 숲의 그늘 아래에서 바람, 유희, 물, 잠자리의 춤 등을 즐기지만 이 기쁨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숲을 아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